

#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

## Variables Related to the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김정희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문혁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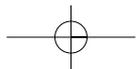
Dept. of Child & Family, Catholic Univ.  
Graduate Student, Ph. D. Course : Kim, Jung Hee  
Dept. of Child, Catholic Univ.  
Professor : Moon, Hyuk Jun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related to the parental role in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s. The subjects were 102 employed mothers and 110 unemployed mothers of 5-year-old children living in Seoul, Korea. The measures were questionnaire, the Parental Role Satisfaction Scale and the Parenting Behaviors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by Cronbach's  $\alpha$ , frequency, percentile, mean,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d Chow-test. Consistent with Belsky's model of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the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s of both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were influenced by child characteristics, parent characteristics, and family factors. Results showed that the parental role satisfaction of both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was correlated to child's birth order, temperament and health of child, mothers' and fathers' age, fathers' educational level, and family income. Parenting behaviors were also correlated to sex of child, child's birth order, temperament of child, parental educational level, and family income for employed mothers and to health of child, mothers' and fathers' age, mothers' educational level, and family income for unemployed mothers. Especially, father's age for employed mothers, and child's temperament for unemployed mothers, were the most strongly related variables for parental role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family income for employed mothers, and fathers' age for unemployed mothers were the most strongly related variables for parenting behaviors.



**주제어(Key Words):** 취업모(employed mother), 비취업모(unemployed mother), 부모역할만족도(parental role satisfaction),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s)

## 1. 서 론

### 1. 문제제기

아동의 성장 발달은 출생 후의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로 어머니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의 환경이 강조되어 왔으며(김계숙, 김희숙, 이명숙, 김신정, 문선영, 1999), 특히 아동기에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이루어졌던 양육행동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역할만족도는 아동의 행동과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문혁준, 1998).

부모역할만족도란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만족감, 행복감 및 유능감으로(도현심, 김지신, 1997) 정의되었으며, 부모의 역할을 만족스럽게 느끼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동기 유발적이고 애정적인 관심을 많이 보이는 반면, 부모역할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취할 뿐 아니라 처벌적인 훈육을 사용하는 등의 반응을 통하여 아동의 사회성 및 지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imons, Beaman, Conger, & Chao, 1993).

양육행동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행동방식으로서, 부모 또는 그 대리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로서(김재희, 박경란, 1998), 온정이나 애정, 관심과 같은 양육특성은 아동의 정서지능(박영애, 최영희, 박인진, 2002)과 자아존중감(박영애, 정옥분, 1996)에 영향을 주며, 통제와 방임과 같은 양육특성은 공격성(김민정, 도현심, 2001)과 정서성(김광웅, 이인수, 1998)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양육은 단기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다른 역할들과 기본적으로 구별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어머니가 양육행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에 대한 심리적인 만족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문혁준, 2001; Grossman, Pollack & Golding, 1988). Hanes와 Dunn(1978)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머니 자신의 역할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녀양육태도나 구체적인 역할수행 행동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동이나 발달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는 어머니는 불만족하는 어머니 보다 자녀관계의 질에 있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Lerner & Galambos, 1985), 역할만족도가 높고 부모역할갈등이 낮을수록 자녀양육시 어머니가 온정·합리적 지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희, 문혁준, 2004). 이와는 반대로 어머니가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높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원체계가 부족할 경우, 아동에 대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뿐만 아니라(박경자, 권연희, 2002) 방임적이며, 과잉 반응적이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등 비효율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혁준, 2000). 이러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어머니-자녀관계는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긍정적 정서, 학업성취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Cleminshaw & Guidubaldi, 1989).

최근 우리사회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여성취업자 중 기혼여성 비율이 75.3%에 이르고 있고, 그 중 결혼기와 자녀육아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도 44.9%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이러한 상황에서, 비취업모에 비해 직장의 일과 자녀양육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안고 있는 취업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담감이 있으리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취업모의 양육행동은 비취업모의 경우 보다 지배적이고 거부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한중혜, 홍계옥, 2000). 그리고 취업모는 직장에서 받는 과다한 스트레스나 일로 인해 가정에서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부모역할만족도를 통해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다른 직업지위를 가질 수 있고 이것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세계관과 양육태도를 갖게 될 때, 불일치한 양육행동으로 인해 아동의 부적응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McHale, Freitag, Crouter, & Bartko, 1991)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여러 배경변인은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만족과 자녀양육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서 부모와 아동 간의 관계 및 아동의 성격형성이나 행동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어머니 특성, 자녀의 특성, 환경적 특성 등 각각의 변인에 대한 관계 또는 영향력을 찾는데 머물러 부모의 역할만족도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총체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취업에 따른 상이한 환경과 심리적 특성에 의해 취업모의 부모로서의 역할만족과 양육과 관계된 행동이 비취업모와 다르게 결정될 것으로 가정할 때, 이 두 집단을 비교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전인발달에 기초로 작용하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를 높이고,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

하고자 하며, 아울러 취업유무에 따른 차별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2. 선행연구 고찰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에 관련 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의 특징으로 요약된다.

첫째,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은 아동 변인, 부모 변인, 가정 변인으로 크게 나뉘 볼 수 있는데, 아동 변인 중 자녀의 성별, 자녀수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이혜란, 1984)가 주를 이루나 김향은과 정옥분(1999)의 연구에서는 남아보다 여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역할만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부모의 나이가 많은 경우 자녀의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부모역할에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으며(강희경, 1994), 자녀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는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현운강, 1994).

부모 변인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가 역할을 수행하는데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들(곽은복, 1991; Russel, 1974)이 있으며, 부모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너무 어리거나(10대) 너무 많지(30대 후반) 않고 적절할 때, 어머니는 부모 역할에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역할수행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녀의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Arlene, Robert, Keith, Mark & Nancy, 1982).

가정 변인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지위와 부모역할만족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Guidubaldi & Cleminshaw, 1985; Lerner & Galambos, 1985)와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역할만족도는 높다고 보고(곽은복, 1991)되는 등 연구 결과가 비일관적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들(양정선, 1997; Someya, Uehara, Kadowaki, Tang, & Takahashi, 2000)을 보면, 부모는 여아에게 의존성을 더 허용하며 설명적이었다고 보고되었으며, 반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Johnson, 2001)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성별이 아닌 자녀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아동의 출생순위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어머니는 첫아이에게 참용성이 더 적으며, 덜 지원적이고, 더 요구하며, 간섭적이며, 비일관적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Ward, Vaughn, & Robb, 1988),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에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순한 기질과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까다로운 기질과 제한적-통제

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천희영, 1992; Lundberg, Perris & Adolffson, 1999).

부모 변인 중 어머니의 연령이 어릴 경우 부모중심의 양육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더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밝혀졌으며(Fox, 1995), 대체로 교육을 많이 받은 어머니는 아동의 요구를 보다 잘 파악하였고 더 애정적이고 수용적이었다고 보고되었다(안재연, 1992).

가정 변인 중 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아동을 통제하기 쉬운 지시적, 처벌적 양육행동을 사용하며(김보형, 1999), 하류계층일수록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고 밝혀졌다(이숙, 1987).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을 보면, 취업모는 비취업모 보다 개인적인 여가를 줄임으로서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하고 양육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자녀 또한 부모의 이 같은 노력에 적극 협조한다(한중혜, 홍계옥, 2000). 즉, 부모역할만족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자녀의 지지가 취업모의 경우 높았으며, 이것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취업모 중 직업에 만족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덜 권위가 있으며 규율을 시행하는데 있어 힘에 덜 의존한다는 연구(Greenberger & Goldberg, 1989)와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불만족도와 거부적인 양육행동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Lerner & Galambos, 1985)도 있다. 반면, 어머니는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부모역할만족도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고 보고되었다(문혁준, 2003).

##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부모, 가정변인들을 파악하여 비교하고 이들 변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2.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 양육행동과 각 변인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2-1.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아동변인(성별, 출생순위, 기질, 건강), 부모변인(연령, 교육수준), 가정변인(월수입)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2-2.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행동과 아동변인(성별, 출생순위, 기질, 건강), 부모변인(연령, 교육수준), 가정변인(월수입)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4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1호, 2006

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 양육행동에 대하여 설명력을 갖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5.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역할만족도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소재한 총 6곳의 유치원을 선정하여, 만 5세반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배포된 질문지는 300부이며, 회수된 질문지는 229부로 이중에서 부실한 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12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은 취업모 102명, 비취업모 110명으로 가계월수입은 취업모의 경우 200만원 미만인 12명(11.8%), 200-400만원이 37명(36.2%), 400만원 이상이 53명(52.0%)이었으며, 비취업모의 경우 200만원 미만인 37명(33.7%), 200-400만원이 43명(39.1%), 400만원 이상이 30명(27.2%)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lt;표 1&gt;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취업모(N = 102)		비취업모(N = 110)	
	N	%	N	%
어머니의 연령				
34세 이하	43	42.2	63	57.3
35세-39세	36	35.3	41	37.3
40세 이상	23	22.5	6	5.5
아버지의 연령				
34세 이하	21	20.6	26	23.6
35세-39세	43	42.2	57	51.8
40세 이상	38	37.3	27	24.5
어머니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27	26.5	68	61.8
대졸	47	46.1	35	31.8
대학원졸	28	27.5	7	6.4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22	21.6	52	47.3
대졸	49	48.0	38	34.5
대학원졸	31	30.4	20	18.2
자녀의 성별				
남아	49	48.0	53	48.2
여아	53	52.0	57	51.8
자녀의 출생순위				
첫째아	49	48.0	57	53.8
둘째 이상	53	52.0	53	48.2

&lt;표 2&gt; 측정 도구별 문항 수와 내적 일치도 계수

측정 변인			문항수	Cronbach's $\alpha$
아 동	기질 건강	-	2	.70
		-	2	.75
어머니	부모 역할만족도	일반 만족도	11	.83
		부모 자녀관계	10	.84
		배우자 지지	10	.95
		부모 역할 갈등	11	.80
		자녀의 지지	6	.85
	전 체	48	.93	
양육행동	온정·합리적 지도 반응성 한계 설정 적극적 참여	온정·합리적 지도	14	.82
		반응성	6	.73
		한계 설정	7	.78
		적극적 참여	4	.71
전 체	31	.86		

## 2. 측정 도구

본 연구 도구는 가족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과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기질과 건강에 관한 어머니용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문항수 및 내적신뢰도는 <표 2>와 같다.

## 1) 어머니 역할만족도

어머니 역할만족도는 현온강과 조복희(1994)가 개발한 부모역할만족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국내의 선행연구를 참조하고 전화면접자료를 토대로 예비연구를 통해 100문항으로 구성된 부모역할만족도 척도를 제작한 것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은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을 해가면서 느끼는 기쁨이나 만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한 도구가 된다는 결론이 제시되었으므로 본 연구자가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를 본 연구자가 5점 척도로 수정하여 '항상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재구성했으며,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어머니 양육행동

어머니 양육행동은 Crase, Clark과 Pease(1978)의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IPBI)를 기초로 수정한 손승희(2002)의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외국의 원문척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문화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삭제하고, 대상 어머니들에게 자료를 수집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였고, 그 결과 4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보이는 양육의 전반적인

특징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자가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의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이루어진 5점 척도로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양육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아동의 기질과 건강

아동의 기질과 건강에 관한 문항은 기존의 연구(이혜란, 1984; Simons *et al.*, 1993)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기질 2문항, 건강 2문항을 선정한 현은강(199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1문항은 부정적 내용, 1문항은 긍정적 내용으로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구성되었으며, 어머니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부정적 문항은 재부호화하여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기질이 순하며,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 3. 자료분석

모든 자료에 대한 통계는 Window용 SPSS 11.0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주요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기질과 건강,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이 사용되었다. 각 질문지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 로 하였으며, 배경변인,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의 관련성은 Pearson의 적률상관계분석을, 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집단간 회귀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Chow(1960)의 test를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의 차이

어머니의 역할만족도의 경우 취업모가 전체 평균이 4.03점으로, 비취업모(M = 3.89) 보다 점수가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 = 2.99, p < .01$ ). 하위영역별로 보면, 일반적인 만족도(취업모 M = 4.26, 비취업모 M = 4.17;  $t = 2.50, p < .05$ )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의 지지(취업모 M = 4.01, 비취업모 M = 3.93;  $t = 1.44, p > .05$ ), 부모 자녀관계(취업모 M = 3.89, 비취업모 M = 3.77;  $t = 2.75, p < .01$ ), 배우자 지지(취업모 M = 3.64, 비취업모 M = 3.53;  $t = 1.28, p > .05$ ), 부모역할갈등(취업모 M = 3.56, 비취업모 M = 3.31;  $t = 3.42, p < .001$ )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보면 취업모가 전체 평균이 3.89점, 비취업모는 3.9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취업모의 경우 온정·합리적 지도(M = 3.96)가 가장 높았으나, 비취업모는 반응성(M = 4.0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최하위점은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 모두 적극적 참여(취업모 M = 3.46, 비취업모 M = 3.42)였다. 취업유무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반응성( $t = -2.91, p < .01$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2.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 양육행동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 1)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표 4>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만족도는 취업모의 경우 아동

<표 3> 취업유무에 따른 측정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측정변인			취업모		비취업모		t값
			M	SD	M	SD	
아동	기질 건강	-	3.36	1.04	3.35	0.88	0.01
		-	3.38	0.98	3.28	0.91	0.67
어머니	부모역할만족도	일반만족도	4.26	0.40	4.17	0.39	2.50*
		부모자녀관계	3.89	0.45	3.77	0.44	2.75**
		배우자지지	3.64	0.95	3.53	0.88	1.28
		부모역할갈등	3.56	0.59	3.31	0.61	3.42***
		자녀의지지	4.01	0.67	3.93	0.62	1.44
		전체	4.03	0.46	3.89	0.46	2.99**
	양육행동	온정·합리적 지도	3.96	0.57	3.97	0.50	0.73
		반응성	3.85	0.66	4.07	0.45	-2.91**
		한계설정	3.79	0.55	3.83	0.55	-0.62
		적극적 참여	3.46	0.70	3.42	0.49	0.73
전체		3.89	0.38	3.93	0.32	-0.70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 취업유무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배경변인		부모역할만족도	일반적인 만족도	부모자녀 관계만족도	배우자 지지만족도	역할갈등	자녀지지 만족도	전 체
취업모	아동군	성별 <sup>1</sup>	.14	.11	-.16	.02	.10	.00
		출생순위	-.30**	-.29**	-.10	-.09	-.33***	-.27**
		기질	.09	.09	.04	.18	.22*	.16
		건강	.03	.03	.09	.24*	.07	.14
	부모군	어머니 연령	-.22*	-.10	-.05	-.10	-.20*	-.16
		아버지 연령	-.24*	-.17	.03	.13	-.19*	-.08
		아버지 교육수준	-.13	.12	.14	.10	-.04	.08
가정군	아버지 교육수준	.15	.37***	.31***	.29**	.20*	.38***	
	가계월수입	.08	.09	.23*	.19	-.09	.18	
비취업모	아동군	성별 <sup>1</sup>	-.15	.08	.01	.08	.05	.02
		출생순위	.25**	.21*	.18	.20*	.36***	.30***
		기질	.30***	.30**	.19*	.39***	.31***	.38***
		건강	.33***	.32***	.26**	.25**	.17	.35***
	부모군	어머니 연령	.22*	.21*	.23*	.37***	.22*	.34***
		아버지 연령	.24*	.21*	.21*	.20*	.17	.27**
		어머니 교육수준	.16	.06	.05	.14	.01	.11
		아버지 교육수준	.13	.15	.12	.21*	-.01	.17
	가정군	가계월수입	.19*	.21*	.21*	.18	.01	.23*

1: 남자, 2: 여자

\*p &lt; .05, \*\*p &lt; .01, \*\*\*p &lt; .001

군의 출생순위( $r = -.30, p < .01$ ), 부모군의 어머니 연령( $r = -.22, p < .05$ ) 및 아버지 연령( $r = -.24, p < .05$ )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비취업모 집단의 경우 아동군의 출생순위( $r = .25, p < .01$ ), 기질( $r = .30, p < .001$ ) 및 건강( $r = .33, p < .001$ ), 부모군의 어머니 연령( $r = .22, p < .05$ ) 및 아버지 연령( $r = .24, p < .05$ ), 가정군의 가계월수입( $r = .19, p < .05$ )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는 취업모의 경우 아동군의 출생순위( $r = -.29, p < .01$ )와 부적 상관을, 부모군의 아버지 교육수준( $r = .37, p < .001$ )과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비취업모 집단은 아동군의 출생순위( $r = .21, p < .05$ ), 기질( $r = .30, p < .01$ ) 및 건강( $r = .32, p < .001$ )과 부모군의 어머니 연령( $r = .21, p < .05$ ) 및 아버지 연령( $r = .21, p < .05$ ), 가정군의 가계월수입( $r = .21, p < .05$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배우자지지 만족도는 취업모는 부모군의 아버지 교육수준( $r = .31, p < .001$ )과, 가정군의 가계월수입( $r = .23, p < .05$ )이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비취업모는 아동군의 기질( $r = .19, p < .05$ ) 및 건강( $r = .26, p < .01$ ), 부모군의 어머니 연령( $r = .23, p < .05$ ) 및 아버지 연령( $r = .21, p < .05$ ), 가정군의 가계월수입( $r = .21, p < .05$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역할갈등은 취업모의 경우 아동의 건강( $r = .24, p < .05$ ) 및 부모군의 아버지 교육수준( $r = .29,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비취업모는 아동군의 출생순위( $r = .20, p < .05$ ), 기질( $r = .39, p < .001$ ) 및 건강( $r = .25, p < .01$ ), 부모

군의 어머니 연령( $r = .37, p < .001$ ) 및 아버지 연령( $r = .20, p < .05$ ), 아버지 학력( $r = .21, p < .05$ )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자녀 지지만족도는 취업모의 경우 아동의 출생순위( $r = -.33, p < .001$ )와 부적 상관을, 기질( $r = .22, p < .05$ )과는 정적 상관이, 부모군의 어머니 연령( $r = -.20, p < .05$ ) 및 아버지 연령( $r = -.19, p < .05$ )과 부적 상관을, 아버지 교육수준( $r = .20, p < .05$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비취업모 집단에서는 아동군의 출생순위( $r = .36, p < .001$ ) 및 기질( $r = .31, p < .001$ ), 부모군의 어머니 연령( $r = .22, p < .05$ )에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어머니 부모역할만족도 전체는 취업모의 경우 아동의 출생순위( $r = -.27, p < .01$ )와 부적 상관이, 부모군의 아버지 교육수준( $r = .38, p < .001$ )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비취업모는 아동군의 출생순위( $r = .30, p < .001$ ), 기질( $r = .38, p < .001$ ) 및 건강( $r = .35, p < .001$ ), 부모군의 어머니 연령( $r = .34, p < .001$ ) 및 아버지 연령( $r = .27, p < .01$ ), 가정군의 가계월수입( $r = .23, p < .05$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 2)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행동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표 5〉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온정·합리적 지도는 취업모의 경우 아동군의 출생순위( $r = -.21, p < .05$ )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부모군의 아버지 교육수준( $r = .24, p < .05$ )과 가정군의 가

〈표 5〉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배경변인		양육행동	온정·합리적 지도	반응성	한계설정	적극적 참여	전체
취업모	아동군	성별 <sup>1</sup>	.03	.23*	-.05	.18	.11
		출생순위	-.21*	.02	-.04	-.10	-.13
		기질	-.16	-.17	.26**	-.17	-.05
		건강	.00	-.18	-.05	.00	-.10
	부모군	어머니 연령	-.15	.09	.00	-.07	-.04
		아버지 연령	-.09	.00	-.04	-.13	-.11
		어머니 교육수준	.08	.07	-.10	.20*	.07
아버지 교육수준		.24*	-.06	-.02	.35***	.16	
가정군	가계월수입	.34***	.08	-.10	.25**	.18	
비취업모	아동군	성별 <sup>1</sup>	.01	-.05	-.06	-.07	-.07
		출생순위	.15	-.05	-.03	-.08	.03
		기질	.12	.16	.04	.07	.17
		건강	.34***	-.12	.14	.13	.19*
	부모군	어머니 연령	.18	.22*	.06	.28**	.25**
		아버지 연령	.15	.06	.12	.18	.19*
		어머니 교육수준	.14	.20*	-.17	-.03	.03
		아버지 교육수준	.15	.09	-.17	.03	.01
	가정군	가계월수입	.17	.28**	-.15	.05	.08

1: 1: 남자, 2: 여자

\*p &lt; .05, \*\*p &lt; .01, \*\*\*p &lt; .001

계월수입( $r = .34, p < .001$ )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비취업모의 경우 단지 아동군의 건강( $r = .34, p < .0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반응성은 취업모의 경우 아동군의 성별( $r = .23, p < .05$ )과 비취업모는 어머니의 연령( $r = .22, p < .05$ )과 교육수준( $r = .20, p < .05$ ) 및 가정군의 가계월수입( $r = .28, p < .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계 설정은 취업모는 아동군의 기질( $r = .26,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비취업모의 경우 어떠한 변인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적극적 참여는 취업모의 경우 부모군의 어머니( $r = .20, p < .05$ )와 아버지의 교육수준( $r = .35, p < .001$ ), 가정군의 가계월수입( $r = .25, p < .01$ )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비취업모는 어머니의 연령( $r =$

$.28, p < .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전체는 단지 비취업모의 경우만이 아동군의 건강( $r = .19, p < .05$ )과 부모군의 어머니( $r = .25, p < .01$ ), 아버지 연령( $r = .19, p < .05$ )과 정적 연관이 있었다.

### 3.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

〈표 6〉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온정·합리적 지도는 취업모의 경우 역할갈등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과, 비취업모의 경우 모든 하위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반응성은 취업모에서는 어머니의 일반적인 만족도( $r = .25, p <$

〈표 6〉 취업유무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부모 역할만족도	양육행동	취업모					비취업모				
		온정· 합리적 지도	반응성	한계설정	적극적 참여	전체	온정· 합리적 지도	반응성	한계설정	적극적 참여	전체
일반적인 만족도		.38***	.25*	.10	.38***	.39***	.47***	.26**	.21*	.33***	.47***
부모자녀 관계만족도		.35***	.21*	.05	.28**	.31***	.41***	.29**	.27**	.34***	.49***
배우자 지지만족도		.32**	.08	.13	.14	.29**	.27**	.22*	.24*	.18	.35***
역할갈등		.12	-.19	.07	.16	.05	.29**	.05	.09	.18	.24*
자녀지지 만족도		.39***	.14	.16	.22*	.33***	.45***	.28**	.23*	.30**	.48***
전체		.42***	.11	.15	.30**	.37***	.47***	.27**	.27**	.32***	.51***

\*p &lt; .05, \*\*p &lt; .01, \*\*\*p &lt; .001

## 8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1호, 2006

.05)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r = .21, p < .05$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비취업모는 역할갈등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한계설정은 취업모는 어떤 변인과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비취업모는 역할갈등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적극적 참여는 취업모 및 비취업모 집단 모두 어머니의 일반적인 만족도( $r = .38, p < .001$ ;  $r = .33, p < .001$ )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r = .28, p < .01$ ;  $r = .34, p < .001$ ), 자녀지지만족도( $r = .22, p < .05$ ;  $r = .30, p < .01$ ), 그리고 전체( $r = .30, p < .01$ ;  $r = .32, p < .001$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전체는 취업모의 경우 역할갈등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과, 비취업모는 모든 하위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 4. 각 변인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1) 각 변인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력이 큰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7-1>, <표 7-2>와 같다. 일반적인 만족도는 취업모의 경우 어머니( $\beta = -.48, p < .001$ )와 아버지의 연령( $\beta = .32, p < .05$ )이, 비취업모는

아동의 기질( $\beta = .25, p < .01$ )과 건강( $\beta = .25, p < .01$ )이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는데, 각각 23%와 27%의 설명력을 보였다.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는 취업모의 경우 아버지의 연령( $\beta = .50, p < .001$ )이, 비취업모는 아동의 기질( $\beta = .24, p < .01$ )과 건강( $\beta = .27, p < .01$ ) 및 가계월수입( $\beta = .22, p < .05$ )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각각의 설명력은 23%와 27%였다. 배우자지지 만족도는 취업모의 경우 아동의 성별( $\beta = -.22, p < .05$ )과 아버지 연령( $\beta = .39, p < .01$ )이, 비취업모는 아동의 건강( $\beta = .21, p < .05$ ) 및 가계월수입( $\beta = .23, p < .05$ )이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고, 설명력은 동일하게 18%였다. 역할갈등은 취업모의 경우 아버지 연령( $\beta = .35, p < .05$ ) 및 교육수준( $\beta = -.33, p < .05$ ), 어머니 교육수준( $\beta = .42, p < .01$ )이, 비취업모는 아동의 성별( $\beta = .17, p < .05$ ), 건강( $\beta = .17, p < .05$ ) 및 기질( $\beta = .30, p < .001$ ), 그리고 아버지 교육수준( $\beta = .30, p < .01$ )이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각각은 24%와 33%의 설명력을 보였다. 자녀지지 만족도는 취업모는 아동의 출생순위( $\beta = -.26, p < .05$ )와 아버지의 연령( $\beta = .40, p < .01$ )이, 비취업모는 아동의 출생순위( $\beta = .29, p < .01$ )와 기질( $\beta = .25, p < .01$ )이 영향력 있었으며, 각각의 설명력은 23%와 22%였다.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전체는 취업모의 경우 어머니( $\beta = -.31, p < .05$ )와 아버지 연령( $\beta = .54, p < .001$ )이, 비취업모는 아동의 기질( $\beta$

<표 7-1> 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부모역할만족도			일반적인만족도			부모자녀관계만족도			배우자지지만족도			역할갈등			자녀지지만족도			전체			
	B	$\bet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아동군																						
성별 <sup>1</sup>	.14	.14	1.51	.07	.08	.82	-.43	-.22*	-2.30	-.08	-.07	-.73	.09	.07	.72	-.06	-.07	-.71				
출생순위	-.19	-.22	-1.83	-.17	-.21	-1.80	-.06	-.04	-.30	-.08	-.08	-.66	-.31	-.26*	-2.20	-.15	-.19	-1.61				
기질	.02	.04	.36	.01	.03	.32	.03	.03	.32	.07	.12	1.24	.08	.12	1.30	.04	.09	.98				
건강	-.00	.00	-.04	-.02	-.04	-.36	.04	.04	.38	.07	.12	1.29	-.01	-.01	-.08	.02	.05	.49				
부모군																						
어머니연령	-.31	-.48***	-3.50	-.15	-.25	-1.80	-.19	-.15	-1.06	-.10	-.12	-.89	-.22	-.25	-1.81	-.19	-.31*	-2.34				
아버지연령	.21	.32*	2.32	.31	.50***	3.65	.52	.39**	2.80	.29	.35*	2.61	.37	.40**	2.93	.36	.54***	4.08				
어머니교육수준	-.10	-.15	-1.05	-.04	-.07	-.47	.21	.16	1.09	.33	.42**	2.91	.02	.03	.17	.10	.16	1.15				
아버지교육수준	.05	.08	.57	.05	.09	.61	-.17	-.14	-.96	-.25	-.33*	-2.40	-.03	-.04	-.28	-.08	-.14	-1.03				
가정군																						
가계월수입	.10	.15	1.28	-.04	-.05	-.47	.15	.11	.90	.04	.05	.44	-.19	-.19	-1.69	.03	.04	.38				
R <sup>2</sup>	.23			.23			.18			.24			.23			.27						
F	3.02**			2.97**			2.28*			3.28**			3.05**			3.77***						

<sup>1</sup> 1 : 남아, 2 : 여아

\* $p < .05$ , \*\* $p < .01$ , \*\*\* $p < .001$

〈표 7-2〉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부모역할 만족도			일반적인 만족도			부모자녀 관계만족도			배우자 지지만족도			역할갈등			자녀지지 만족도			전 체		
	B	$\bet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아동군																					
성별 <sup>1</sup>	-.13	-.14	-1.53	.11	.12	1.39	.11	.06	.66	.21	.17*	1.97	.06	.05	.49	.07	.08	.97			
출생순위	.12	.16	1.70	.07	.10	1.02	.10	.07	.67	.05	.05	.56	.29	.29**	3.03	.12	.16	1.79			
기질	.13	.25**	2.82	.12	.24**	2.73	.14	.14	1.53	.21	.30***	3.52	.18	.25**	2.75	.16	.30***	3.64			
건강	.13	.25**	2.78	.13	.27**	2.99	.20	.21*	2.19	.11	.17*	1.98	.07	.10	1.09	.13	.26**	3.14			
부모군																					
어머니 연령	.04	.05	.40	-.15	-.22	-1.68	-.26	-.18	-1.33	-.09	-.09	-.76	.01	.01	.08	-.10	-.13	-1.09			
아버지 연령	-.03	-.05	-.42	.08	.15	1.14	.22	.09	.66	.15	.19	1.52	-.03	-.03	-.23	.06	.10	.86			
어머니 교육수준	.07	.11	1.05	.04	.06	.56	.08	.06	.56	-.02	-.03	-.26	.01	.01	.12	.04	.05	.56			
아버지 교육수준	-.01	-.02	-.16	.05	.07	.62	.15	.11	.94	.30	.30**	2.93	.08	.08	.73	.12	.16	1.62			
가정군																					
가계월수입	.08	.14	1.25	.12	.22*	2.03	.26	.23*	1.97	.06	.08	.77	-.03	-.03	-.29	.11	.18	1.80			
R <sup>2</sup>	.27			.27			.18			.33			.22			.37					
F	4.05***			4.11***			2.44*			5.38***			3.16**			6.42***					

1 : 남아, 2 : 여아

\*p &lt; .05, \*\*p &lt; .01, \*\*\*p &lt; .001

= .30, p < .001)과 건강( $\beta = .26$ , p < .01)이 영향력이 있었고 각각 27%와 37%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7-3〉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배경변인들을 독립 변인으로 취한 각 부모역할만족도의 회귀 모델 사이에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how 검정을 실행한 결과이다. 일반적인 만족도(F = 3.61, p < .001), 부모자녀 관계만족도(F = 2.72, p < .01), 역할갈등(F = 2.67, p < .01), 자녀지지 만족도(F = 2.90, p < .01), 그리고 부모역할만족도 전체(F = 3.29, p < .01)에 대해서 취업모 집단과 비취업모 집단의 회귀 모델들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외 배우자 지지만족도(F = 1.54, p > .05)의 경우 취업

모 집단과 비취업모 집단의 회귀모델들이 독립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 2) 각 변인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행동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8-1〉, 〈표 8-2〉와 같다. 그 중 모델의 적합성을 의미하는 분산분석 모델 검정이 유의미한 것은 취업모 및 비취업모 집단 모두에 대한 온정·합리적 지도 및 반응성과 취업모 집단에 대한 적극적 참여였다. 온정·합리적 지도는 취업모의 경우 아동의 기질( $\beta = -.19$ , p < .05)과 가계월수입( $\beta = .31$ , p < .01)이, 비취업모는 아동의 건강( $\beta = .31$ , p < .001)이 영향력 있었고 각각을 설명하는 비율은 22%와 17%였다. 반응성에 대한 양육행동은 취업모의 경우 아동의 성별( $\beta = .30$ , p < .01)이, 비취업모는 아동의 건강( $\beta = -.18$ , p < .05)과 아버지 교육수준( $\beta = .22$ , p < .05), 그리고 가계월수입( $\beta = .29$ , p < .05)이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으며, 각각은 17%와 21% 설명력을 보였다. 적극적 참여는 취업모의 경우 아버지 연령( $\beta = .38$ , p < .01)이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고, 그 설명력은 21%였다.

〈표 8-3〉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에 대하여 배경변인들을 독립 변인으로 취한 각 양육행동의 회귀 모델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Chow 검정을

〈표 7-3〉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chow-test 결과

구 분	Chow test : F
일반적인 만족도	3.61***
부모자녀 관계만족도	2.72**
배우자 지지만족도	1.54
역할갈등	2.67**
자녀지지 만족도	2.90**
전 체	3.29**

\*\*p &lt; .01, \*\*\*p &lt; .001

〈표 8-1〉 취업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양육행동 독립변인	온정·합리적 지도			반응성			한계설정			적극적 참여			전체		
	B	$\bet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아동군															
성별 <sup>1</sup>	.03	.03	.27	.39	.30**	3.01	-.07	-.06	-.56	.22	.16	1.62	.09	.12	1.19
출생순위	-.18	-.17	-1.45	-.06	-.05	-.41	.01	.01	.07	.03	.03	.22	-.05	-.08	-.62
기질	-.11	-.19*	-2.00	-.09	-.15	-1.50	.15	.28**	2.72	-.13	-.19	-1.92	-.02	-.04	-.43
건강	-.01	-.02	-.19	-.10	-.15	-1.48	-.04	-.07	-.66	-.03	-.04	-.35	-.04	-.11	-1.07
부모군															
어머니 연령	-.20	-.26	-1.91	.08	.09	.63	-.12	-.15	-1.04	-.14	-.15	-1.05	-.09	-.18	-1.019
아버지 연령	-.20	.25	1.78	-.21	-.22	-1.57	.08	.10	.70	.37	.38**	2.71	.09	.16	1.10
어머니 교육수준	.06	.08	.53	-.10	-.11	-.72	-.07	-.10	-.61	-.13	-.13	-.91	-.06	-.12	-.77
아버지 교육수준	-.07	-.10	-.70	.16	.19	1.28	.08	.12	.76	.01	.01	.08	.05	.11	.75
가정군															
가계월수입	.25	.31**	2.66	.12	.12	1.02	-.03	-.04	-.29	.13	.12	1.06	.10	.17	1.40
R <sup>2</sup>	.22			.17			.10			.21			.09		
F	2.85**			2.03*			1.13			2.65**			1.01		

1: 1: 남아, 2: 여아  
\*p < .05, \*\*p < .01

〈표 8-2〉 비취업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양육행동 독립변인	온정·합리적 지도			반응성			한계설정			적극적 참여			전체		
	B	$\bet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아동군															
성별 <sup>1</sup>	.05	.05	.54	.01	.02	.16	-.08	-.07	-.74	.01	.01	.12	-.01	-.02	-.19
출생순위	.06	.07	.73	-.12	-.16	-1.66	-.08	-.09	-.88	-.18	-.22*	-2.20	-.05	-.10	-.95
기질	.03	.05	.52	.08	.16	1.73	.03	.05	.46	.02	.04	.36	.05	.14	1.42
건강	.17	.31***	3.27	-.09	-.18*	-1.97	.08	.13	1.34	.05	.10	1.00	.05	.13	1.35
부모군															
어머니 연령	.00	.00	.00	.15	.20	1.52	-.06	-.07	-.48	-.08	-.10	-.73	.10	.19	1.61
아버지 연령	.04	.07	.48	-.15	-.25	-1.88	-.10	-.13	-.93	.01	.01	.09	.05	.10	.90
어머니 교육수준	-.01	-.01	-.08	.02	.03	.26	.11	.13	1.16	.05	.08	.71	.00	.00	.03
아버지 교육수준	.08	.10	.86	.16	.22*	1.99	.01	.01	.10	.25	.30**	2.61	-.05	-.11	-.75
가정군															
가계월수입	.06	.10	.83	.17	.29*	2.55	-.04	-.06	-.51	.03	.05	.41	.04	.09	.77
R <sup>2</sup>	.17			.21			.09			.14			.12		
F	2.20*			2.87**			1.08			1.75			1.51		

1: 1: 남아, 2: 여아  
\*p < .05, \*\*p < .01, \*\*\*p < .001

〈표 8-3〉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chow-test 결과

구분	Chow test : F
온정·합리적 지도	2.19*
반응성	3.13**
한계설정	.81
적극적 참여	2.23*
전체	1.66

\*p < .05, \*\*p < .01

실시한 결과이다. 온정·합리적 지도(F = 2.19, p < .05), 반응성(F = 3.13, p < .01), 적극적 참여(F = 2.23, p < .05)에 대해서 취업모 집단과 비취업모 집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외 한계설정(F = .81, p > .05) 그리고 양육행동 전체(F = 1.66, p > .05)의 경우 취업모 집단과 비취업모 집단의 회귀모델들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9-1〉 취업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역할만족도의 영향력

부모 역할만족도	양육행동			반응성			한계설정			적극적 참여			전체		
	B	$\bet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일반적인 만족도	.20	.17	1.44	.41	.30*	2.45	-.00	.00	-.02	.51	.35**	2.77	.21	.27*	2.23
부모자녀 관계만족도	.15	.12	1.07	.29	.20	1.71	-.11	-.09	-.69	.22	.14	1.20	.09	.11	.98
배우자 지지만족도	.12	.20*	1.96	.05	.08	.72	.06	.11	.93	-.02	-.02	-.18	.08	.20	1.93
역할갈등	-.10	-.10	-.97	-.42	-.38***	-3.57	.02	.02	.18	.02	.02	.15	-.12	-.18	-1.76
자녀지지 만족도	.17	.20	1.73	-.08	-.08	-.70	.14	.17	1.29	-.06	-.06	-.50	.06	.10	.85
R <sup>2</sup>	.24			.18			.04			.15			.22		
F	6.02***			4.32***			.74			3.63**			5.45***		

\*p<.05, \*\*p<.01, \*\*\*p<.001

〈표 9-2〉 비취업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역할만족도의 영향력

부모 역할만족도	양육행동			반응성			한계설정			적극적 참여			전체		
	B	$\bet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일반적인 만족도	.26	.25*	2.04	.06	.07	.49	-.00	.00	-.00	.17	.16	1.25	.10	.15	1.31
부모자녀 관계만족도	.09	.08	.62	.15	.14	1.03	.19	.15	1.08	.22	.20	1.43	.15	.21	1.69
배우자 지지만족도	.02	.03	.23	.07	.13	1.13	.09	.15	.127	-.02	-.03	-.24	.04	.12	1.18
역할갈등	.06	.08	.82	-.11	-.15	-1.39	-.07	-.07	-.68	.00	.01	.04	-.02	-.04	-.42
자녀지지 만족도	.17	.21	1.83	.12	.17	1.31	.11	.12	.96	.07	.09	.70	.13	.25*	2.23
R <sup>2</sup>	.27			.13			.10			.14			.32		
F	7.82***			2.96*			2.24			3.46**			9.99***		

\*p<.05, \*\*p<.01, \*\*\*p<.001

5.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역할 만족도의 영향력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가 어머니 양육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9-1〉, 〈표 9-2〉와 같다. 그 중 모델의 적합성을 의미하는 분산분석 모델 검정이 유의미한 것은 취업모 및 비취업모 집단 모두에 대한 온정·합리적 지도 및 반응성, 적극적 참여, 그리고 양육행동 전체였다. 온정·합리적 지도는 취업모의 경우 배우자지지 만족도( $\beta = .20, p < .05$ )가, 비취업모는 일반적인 만족도( $\beta = .25, p < .05$ )가 영향력 있었고, 각각의 설명력은 24%와 27%였다. 반응성의 양육행동은 취업모는 일반적 만족도( $\beta = .30, p < .05$ )와 역할갈등( $\beta = -.38, p < .001$ )이 영향력 있었고, 비취업모는 신뢰구간 5% 이내에서 영향력 있는 변인은 없었다. 각각은 18%와 13%의 설명력을 보였다. 적극적 참여의 양육행동은 취업모의 경우 일반적 만족도( $\beta = .35, p < .01$ )가 영향력 있었으나, 비취업모는 유의미하게 영향력 있는 변인은 없었다. 각각의 설명력은 15%와 14%였다. 양육행동 전체는 취업모의 경우 일반적 만족도( $\beta = .27, p < .05$ )가, 비취업모는 자녀지지 만족도( $\beta = .25, p < .05$ )가 영향력 있는 변인을 보였고, 각각을 설명하는 비율은 22%와 32%였다.

〈표 9-3〉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에 대하여 부모역할만족도

〈표 9-3〉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양육행동의 chow-test 결과

구분	Chow test : F
온정·합리적 지도	0.72
반응성	2.66*
한계설정	.53
적극적 참여	.47
전체	.86

\*p < .05

를 독립 변인으로 취한 각 양육행동의 회귀 모델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Chow 검정을 한 결과이다. 단지 반응성( $F = 2.66, p < .05$ )에 대해서만 취업모 집단과 비취업모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만 5세 아동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변인(성별, 출생순위, 기질, 건강), 부모변인(연령, 교육수준), 가정변인(월수입) 간의 관계와 영향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본 연구 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의 차이를 보면, 부모역할만족도 전체와 하위 영역인 일반만족도,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은 가정이라는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보상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사회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성취감이 부모로서의 역할만족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취업유무에 따른 역할만족에 차이가 없다는 조복희와 현은강(1994)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며,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만족감이 높다고 보고된 Goldstein과 Ross(1989)의 연구와는 일치하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역할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업동기와 직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부모역할 갈등은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으로 어머니의 양육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시기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취업은 부모로서의 역할긴장과 혼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양육행동에서는 하위영역인 반응성에서만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보다 비취업모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행동이나 요구에 반응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녀의 상황에 반응을 적게 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았다는 선행연구(김정희, 문혁준, 2004)와 아동의 요구에 어머니의 지나친 민감성 및 반응성은 아동으로 하여금 의존성을 야기하며 사회적 위축, 불안, 분노, 공격적 행동을 나타낸다(Steinberg, Lamborn, Darling, Mounts, & Dornbusch, 1994)는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반응정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 양육행동과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면, 일반만족도는 취업모의 경우 첫째아이일수록, 어머니와 아버지 연령이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둘째아이 이상일수록, 건강이 좋고 기질이 순할수록, 부모의 연령이 많고, 가계월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연령, 취업유무, 자녀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문혁준(2001)의 연구결과와 대조된다.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는 취업모의 경우 첫째아이며, 부모의 연령이 적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 비취업모는 둘째아 이상일수록, 건강이 좋고 기질 또한 순할수록, 부모의 연령과 가계월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지지 만족도는 취업모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상위집단에서,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배우자지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결과(문혁준, 2001)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양육행동에 있어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행동과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면, 취업모의 경우 자녀가 첫째아이며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가계월수입이 높을수록, 비취업모는 아동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어머니가 온정·합리적 지도를 취했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자녀에게 보다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모델이 되고, 정보를 제공하며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Baumrind, 1973)는 연구결과와 관련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 자녀에게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협동적인 관계를 맺으며, 학습의 동기나 호기심을 격려하는 실제적인 자녀지도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김혜영(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저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중류층에 비해 자녀에게 합리적인 설명이나 적극적 관심은 적게 나타났다. 반응성에 있어서는 취업모의 경우 자녀가 여아일 때, 비취업모는 어머니 연령, 교육수준, 가계월수입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모두 차이가 없었는데, 이것은 첫째아에게 더 많이 반응한다는 연구결과(한중혜, 홍계옥, 2000)와 차이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자녀에게 친밀감이나 수용적 태도, 민감한 양육행동 역시 중류층에 비해 적게 나타난 연구결과(문혁준, 2001)와 일치한다. 그리고 한계설정에 있어서는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남아에게 더 한계설정을 많이 한다는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공인숙, 1989).

셋째,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 전체는 취업모 집단과 비취업모 집단 모두에서 일반만족도,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배우자지지 만족도, 자녀지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양육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자체가 부모로서의 역할만족감이나 자녀교육,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역할에 대한 심리적인 만족감, 유아기에 대한 지식이나 가치관 등이 더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chow 검증을 통하여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에 대한 부모역할만족도의 모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만족도, 부모자녀 관계만족도, 역할갈등, 자녀지지 만족도와 전체에서 모델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경우 아버지 연령, 그 다음으로 어머니 연령 및 교육수준으로 영향력이 있었다. 비취업모에 있어서는 자녀

의 기질이, 그 다음으로 자녀의 건강, 자녀의 출생순위와 아버지 교육수준 순으로 주된 영향이 있었다.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에 대한 양육행동의 모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온정·합리적 지도, 반응성, 그리고 적극적 참여에서 나타났는데, 각각의 경우를 보면, 취업모는 어머니 연령, 가계월수입, 아버지 연령 순으로, 비취업모의 경우 아버지 교육수준이 가장 주된 영향력이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의 기질, 아버지의 연령 순으로 영향이 있었다. 위의 결과들을 통해 비취업모의 경우 자녀의 기질이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에 각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볼 수 있는데, 기질은 선천적인 요소로서 영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가지므로 환경에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자녀의 특성 보다 부모의 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임양미, 1994). 최근에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기질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 아동의 기질 특성이 부모의 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과 연령이 취업모 집단과 비취업모 집단 모두에서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통해, 배우자의 요인은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취업유무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양육행동의 모델 차이를 chow 검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반응성에서만 두 집단의 모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행동 중 취업모 집단의 반응성에 일반적인 만족도와 역할갈등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비취업모 집단의 반응성에는 통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변인은 없었다. 일반적인 만족도는 취업모 집단의 적극적 참여, 양육행동 전체, 그리고 비취업모 집단의 온정·합리적 지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지지 만족도는 비취업모 집단에서 양육행동 전체에 유의한 변인이었다. 배우자지지 만족도는 취업모 집단에서 온정·합리적 지도에 유의한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사와 양육의 책임이 아직은 여성의 부담으로 되어 있어 여성은 경제 활동과 가사활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정민자, 박초아, 이진숙, 2003) 배우자의 지지는 취업모가 자녀를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을 하는데 주요 변인이 됨을 파악할 수 있겠다. 역할갈등은 취업모 집단에서 반응성에 영향력을 보여주었는데, 취업모는 아내역할, 부모역할, 직업역할 수행에 따른 갈등을 겪을 수가 있으며 이는 가족 내의 역할구조, 상호작용 유형 등에 변화를 요구하며 자녀의 행동과 요구에 대한 반응성의 양육행동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한 시사점은 우리 사회가 유아기 자녀

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부모자녀 관계를 향상시키고 부모역할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관심은 아동, 부모, 가정변인과 부모역할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있으나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결과는 양방적 관계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연구결과와 관련한 중재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통해 인과관계의 영향을 규명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만 5세아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자녀가 성장하면서 일상적인 돌봄은 적어지고 애정적인 관계를 보다 중요시하고 어린 아동에게는 명령이나 강요된 순종과 같은 물리적 방법을 보다 빈번히 사용하는 등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형태가 변화하게 되므로 다양한 연령을 통해 연령 간의 부모 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을 질문지로 측정할 경우, 응답하는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관찰이나 심층면접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에서 취업모의 가계월수입이 '400만원 이상'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는데, 보다 세분화시켜 수입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의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취업유무만을 고려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직업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행동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부모역할만족도의 일반적인 특징과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데 비해, 본 연구는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으로 인한 양육행동과 부모역할만족도의 결과를 제시하였고, 두 집단간의 차이를 밝힌 점에서 연구의 실제적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 참고문헌

- 강희경(1994).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역할만족도와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 자기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은복(1991). 어머니의 역할만족도와 유아의 지각된 자기 능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숙, 김희숙, 이명숙, 김신정, 문선영(1999). 아동간호학. 서울: 신광출판사.
- 김광웅, 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5.
- 김민정, 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보형(1999). 경제불황 상황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인성특성 및 우울감의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희, 박경란(1998). 취업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15, 1353-1377.
- 김정희, 문혁준(2004).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0), 23-38.
- 김혜영(1995). 저소득층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은, 정옥분(1999).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어머니의 역할만족,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존감, 사회적 능력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4), 179-193.
- 도현심, 김지신(1997). 사회적지지 및 부모역할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5(6), 127-135.
- 박경자, 권연희(2002). 문제해결을 위한 모-자 상호작용시 어머니 행동과 관련된 변인: 결혼만족도, 자녀 양육 스트레스, 애착안정성. 아동학회지, 23(4), 53-70.
- 박영애, 정옥분(1996).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연구 - 자존감에 대한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의 독립적 기여와 상호작용 효과. 아동학회지, 17(1), 189-202.
-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2002).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 차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3(2), 71-88.
- 문혁준(1998).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1), 91-101.
- 문혁준(2000).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 훈육 방법. 대한가정학회지, 38(6), 29-41.
- 문혁준(2001).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05-219.
- 문혁준(2003).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훈육방법에 대한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1), 81-94.
- 손승희(2002).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인관계 문제해결력과 또래 유능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재연(199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정선(1997).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198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란(1984). 부모역할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 및 만족도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양미(1994). 어머니 양육방식의 관련요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민자, 박초아, 이진숙(2003). 방과후 아동지도. 서울: 양서원.
- 조복희, 현온강(1994). 한국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5), 97-108.
- 천희영(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05). 경제활동인구월보. 통계청: 저자.
- 한중혜, 홍계옥(2000). 어머니의 자기지각과 양육행동.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1), 85-111.
- 현온강(1994).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온강, 조복희(1994). 한국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5), 97-108.
- Arlene, S. R., Robert, B. B., Keith, A. C., Mark, T. G., & Nancy, M. R. (1982). Effect of maternal age on parenting rol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627-634.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D. Pick(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7*, 3-46.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how, G. C. (1960). Tests of Equality between Sets of Coefficients in Two Linear Regressions. *Econometrica, 28*, 591-605.
- Cleminshaw, H. K., & Guidubaldi, J.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eminshaw & Guidubaldi parent-satisfaction scale. In M. J. Fine,(Ed.),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contemporary perspectives*(pp. 257-277). San Diego: Academic Hall.
- Cruse, S. J., Clark, S. G., & Pease, D. (1978).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anual*. Iowa State

-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Fox, R. L. (1995). Maternal factors related to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al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6*, 431-441.
- Goldstein, K., & Ross, C. E. (1989). The perceived burden of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 504-526.
- Greenberger, E., & Goldberg, W. A. (1989). Work, parenting, and socialization of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5*, 22-35.
- Grossman, F. K., Pollack, W. S., & Golding, E. (1988). Fathers and children: Predict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fa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2-91.
- Guidubaldi, J., & Cleminshaw, H. K. (1985) The development of 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4(4)*, 293-298.
- Hanes, M. L., & Dunn, S. K. (1978). Maternal attitudes and the development of mothers and children. In J. H. Stevens, Jr. & M. Matthews, (Eds.), *Mother/child, Father/child relationships*(51-67).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Johnson, V. K. (2001). Marital interaction, family organization and differences in parenting behavior: Explaining variations across family interaction contexts. *Family Process, 40(3)*, 333-342.
- Lerner, J. V., & Galambos, N. L. (1985). Maternal role satisfactio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 temperament: A proc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157-1164.
- Lundberg, M., Perris, C., & Adolfsson, R. (1999). Family environment and personality: Perceived parenting and role of personality.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7*, 267-274.
- McHale, S. M., Freitag, M., Crouter, A., & Bartko, W. T. (1991). Connections between dimensions of marital quality and school-aged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1-18.
- Russel, C. S. (1974). Transition to Parenthood: Problems and gratific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2)*, 294-302.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1-106.
- Someya, T., Uehara, T., Kadowaki, M., Tang, S., & Takahashi, S. (2000). Effect of gender difference and birth order on perceived parenting style, measured by the EMBU scale, in Japanese.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53*, 77-81.
- Steinberg, L., Lamborn, S. D., Darling, N., Mounts, M. S., & Dornbusch, S. M. (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 754-770.
- Ward, M. J., Vaughn, B. E., & Robb, M. D. (1988). Social-emotional adaptation and infant-mother attachment in siblings: Role of the mother in cross-sibling consistency. *Child Development, 59*, 643-651.

---

(2005년 7월 18일 접수, 2005년 12월 1일 채택)